손학규 불출마 확고…여야 '거물급 대결' 무산?

경기 화성갑 보선…새누리 서청원 후보 확정

민주, 공심위 회의 하루 연기 孫 설득 나설듯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오는 30일 치러지는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 출마해 달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지난 5일 또다시 불출마 의사를 확실히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새누리당 공천을 확정지은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와 거물급 맞대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손 고문은 지난 4일 저녁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경기 분당의 한 식당에서 만나 화성갑 출마 요청을 받은 뒤 고사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지난 5일 다시 측근을 통해 화성갑 보선에 출마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손 고문은 김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당이 필요로 할 때 제 몸을 사리지 않았지만 과연 지금이 그 때인지는 의문이 많다"며 "대선 패배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데 내가 나가면 유권자가 곱게 볼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이 끝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 출마하는 것은 물론 8개월간 독일 연수에서 지난달 말 돌아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손 고문과 가까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에 나와 "차기 대선 후보급의 비중이 있는 정치인인데 보선이 있을 때마다 출마하라고 하면 되겠느냐"며 "지금보다 더 중요하고 또 꼭 선택되고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때 범야권을 이끌고 가는 위치에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손 고문으로서는 독일 연수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을 내다보며 야권 진영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김한길 대표 측은 손 고문의 출마를 위해 계속 설득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애초 6일 오후 5시 10월 재보궐선거 공천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기 화성갑, 경북 포항 남·울릉지역에 출마할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7일 오전으로 회의를 돌연 연기했다. 민주당은 회의를 1시간 15분 정도 앞둔 오후 3시44분께 '회의 연기'를 통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보냈다.

이와 관련, 공천심사위원장인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날 "아직 여지가 있어서 회의를 연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정 대변인은 "손 고문 측과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데드라인까진 계속 노력해 보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공심위 공천심사를 마무리했으나 화성갑 지역의 손 고문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천자 선정을 유보한 상태다.

손 고문이 불출마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이번 화성갑 보선에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 고문 간의 '빅매치'를 통해 '박근혜정부 심판론'을 제기하고 NLL대화록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정국 대반전을 꾀하려던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손 고문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 화성갑 지역에는 정세균 계로 분류되는 오일용 현 지역위원장, 경북 포항 남·울릉 지역에 허대만 전 지역위원장의 공천이 각각 유력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설훈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위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역 입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화록'에 갇힌 정국 '음원 공개' 핫이슈로

여 "음원파일 공개 검토"…민주 거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벌이는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이번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화록 사건을 끝까지 규명해 반드시 민주당에 책임을 지우겠다고 벼르는 반면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감세 문제 등을 재점화해 정국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는 '봉하 이지원(e知園)'에서 발견한 대화록과, 삭제본을 복구한 대화록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인 음원 파일을 공개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봉하 이지원(e知園)에서 삭제된 회의록과 발견된 회의록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야 한다"며 "삭제된 회의록과 발견된 회의록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라도 음원 파일 공개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과 달리 국정원 음원은 여야 합의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다는 게 음원 공개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번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의견을 모으고 일정을 잡으면서 NLL(북방한계선) 문제 등에 대해선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 같은 합의를 깬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첨예한 '대화록 정국'의 와중에 국회는 7일과 8일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공방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7일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8일에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연설자로 나선다.

우선 새누리당 황 대표의 대표연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천을 뒷받침하는 공약입법과 이를 통한 민생 살리기를 강조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은 두 달 넘게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며 강조한 '한 손엔 민주주의, 한 손엔 민생'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 前대통령이 '소신껏 하라'고 말해 NLL 지킬 수 있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침묵 깨고 발언 주목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방장관 자격으로 참여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장관 소신껏 하고 오라'고 웃으며 말했고, 그 결과 국방장관회담을 하며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국방장관 자격으로 고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김 실장은 오랜 침묵을 깨고 남북정상회담 6주년인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결산 심사에 출석,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속 국방장관회담 때) '소신껏 말하게 해달라. 중간에 훈령을 보내거나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김 실장은 또 정상회담 이전에도 "노 전 대통령을 만나 NLL(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보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견 등을 말해 본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단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와 NLL과 관련한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었다"며 "당시 통일부를 중심으로 의견 차이가 많았다. 당시 회의에서 통일부 장관이 (NLL 포기 같은) 얘기를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기억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정권 안보 핵심책임자인 김 실장의 이 같은 증언은 최근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은 그동안 김 실장에게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해 왔으나, 김 실장은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선관위 '공명선거지원단' 모집

지방선거 위법 예방활동

광주시 선관위와 전남도 선관위는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할 공정선거지원단원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선발 규모는 광주 44명, 전남 155명이다. 응모기간은 1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서류심사와 실기시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한 사람은 11월1일부터 2014년 6월14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근무를 희망하는 시·도 또는 구·시·군선관위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희망자는 지원서를 광주시 선관위 또는 전남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직접 방문해 작성한 뒤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하루 수당과 실비 3만8880원과 2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문의는 광주시 선관위 지도과(062-382-4773), 전남도 선관위 지도과(062-375-1390)로 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

박대통령 지지율 추락

진영·채동욱 사태 여파…3주새 11%포인트 하락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파문, 복지공약 후퇴 논란 등의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이는 전체의 56%였다. 이는 같은 기관의 지난주(9월 넷째 주) 조사결과 60%보다 4%포인트 하락한 것이고, 9월 둘째 주 조사 때의 67%보다는 11%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잘못하고 있다'며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는 34% 중 가장 많은 36%는 부정 평가 이유로 '공약실천 미흡/공약에 대한 입장 바뀜'을 들었다. 또 '국민소통 미흡/너무 비공개/투명하지 않다', '인사 잘못함/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용'을 지적한 이도 각각 10%에 달했다.

공약후퇴 논란을 빚은 기초연금과 관련, 응답자의 82%는 '소득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어르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16%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한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o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au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상담전화 1899-3975 H.P 010-3598-7080

사 | 원 | 모 | 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 웨이츄레스(신입 및 주임급) 0명
2.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3. 급 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4.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5.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충원시까지(충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7. 접 수 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등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주택용) 5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주택용) 30,000원
제일건강 | 문의전화 :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